

#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15017
----------	-------

제안연월일 : 2015. 5.

제안자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 중에 하버드대 강연 및 각종 인터뷰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인신매매의 피해자” 라고 표현하는 등 교묘한 수사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치밀한 꾀수와 지난 4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비롯한 방미 중 어떠한 자리에서도 침략과 식민지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는 등 계속적으로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진주만 기습을 거론하며 “깊은 경의와 영원한 위로”를 표명하여 고개 숙인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직접 피해국에 대해서는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일말의 사죄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결으로는 정권의 대표슬로건을 ‘여성이 빛나는 사회’로 내세워 개발

도상국 여성인권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국제포럼을 만드는 등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진정한 반성이 없는 지금의 행태로 보아서는 단순히 추악한 역사를 덧칠하여 지우고자 하는 기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없이 어떠한 전략과 수사를 사용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하며, 특히 아베 총리는 지속적인 망언·망동을 삼가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 중 하버드대 강연 및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비롯한 어떠한 자리에서도 침략과 식민지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외면하며 반복적으로 “인신매매” 등의 교묘한 수사로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직접적인 피해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죄의 표현도 하지 않는 아베 총리의 행태가 계속되는 한 일본을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을 위한 동반자로서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독도 영유권 침해 및 교과서 왜곡·날조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회피로 이어지는 아베 정부의 일련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한·일 양국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아베 총리가 하루 빨리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적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위안부 피해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네덜란드, 호주 및 UN 등 국제기관, 국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등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한다.

### 제안이유

2015년 4월 29일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 상·하원 의회연설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진주만 기습을 거론하며 “깊은 경의와 영원한 위로”를 표명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직접 피해국에 대해서는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채 “아시아 국가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표현으로만 갈음했으며, 또한 ‘사과’와 ‘반성’이라는 표현 대신 ‘회한’, ‘후회’라는

주관적 단어를 사용하여 단순히 직면한 상황을 교묘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음.

더불어 “전쟁은 늘 여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하거나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마치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문제가 아니며, 일반적인 차원의 전시 여성인권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며 위안부 문제 본질을 흐리고 있음.

한편 아베 총리는 정권의 대표적 정책 슬로건을 ‘여성이 빛나는 사회’로 내세우며 개발도상국의 여성인권유린 방지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세계여성인권포럼을 창립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거짓된 이미지로 덧씌워 일본군 위안부라는 추악한 가해행위를 덮어버리려는 획책을 계속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는 한 목소리로 침략전쟁과 여성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함.